

다산포럼

김정남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이 있던 무렵, 나는 장준하를 가까이서 자주 볼 수 있었다. 그때 장준하는 비록 필마단기이기는 했지만, 그 누구보다 박정희와 강렬하게 맞서고 있었다. 일본군장교가 되어 독립군을 쫓던 박정희에게, 독립군 출신인 자신이 결코 정신적으로는 저서 안 된다면서 매일 아침 냉수마찰을 하는 등 자신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었다. 그 조용하면서도 신독(慎獨)한 자세는 과연 지사의 면모가 여겨졌다.

기 전에 낫없이 시큰하고, 마침내 알라 울음을 터뜨리지 않을 수 있으랴.” 대지(大智)는 약우(若愚)라고 했단다. 우리는 장준하의 그 순수한 열정과 진정성 앞에 우리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다. 그러나 장준하는 얼마까지 앉아 참담한 배신을 맛보게 된다. 박정희는 ‘대화 있는

反노무현은 다 좋은가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그것은 필시 박정희의 민족애, 또는 민족통일에 대한 열정의 소산이라기보다는 종신집권을 위해 치밀하게 계산된 공작이요 카드였다. 많은 사람들이 박정희의 저의를 의심했다. 그러나 장준하는 달랐다. 단순히 찬성하는 정도를 지나 어린애처럼 좋아하고 기뻐했다. 이때 그 유명한 장준하의 대사(臺辭)가 나온다. “모든 통일은 다 좋은가. 그렇다. 통일 이상의 지상명령은 없다. ... 민족적 양심에 살려야 하는 사람의 지상과제가 분단된 민족의 통일이라고 할 때, 어떻게 이 사실을 엄청난 감격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는가. 말로 따지고 글자로 적

남북대결을 위해’라는 명분으로 유신을 선포하는 것이다. 장준하는 그 유신의 첫 번째 희생자가 된다. 아쉽게 그 죽음의 진상마저 가려진 채, 유신지하에서 끝내 불귀의 객이 되고 마는 것이다. 반노무현이면 다 좋은가. 하기는 대통령 자신조차 ‘반노무현이면 모두가 다 정의’라는 세태에 울분을 토로한 적도 있다. 이런 정권이 다시 태어나서는 안된다는. 그 반면교사가 되고 있는 것만이 이 정권의 유일한 치적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로 노무현 정권이 4년여 동안 보여준

무능과, 독선과 치기에 국민은 실망한지 이미 오래요, 그 하는 일(정책)이나 인사와 언행 그 대부분이 국민을 식상하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뚱고 싶다. ‘반노무현이면 다 좋은가.’ 나는 적어도 역사의 정의와 그 힘을 믿으며 역사는 정의의 방향, 정(正)의 방향으로 흘러야 그것이 정도라고 확신한다. 노무현과 이회창이 맞붙은 지난번 대선은 “이 나라의 국민은 결코 역사가 거꾸로 흐를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었다고 나는 해석한다. 독재에 대한 반독재 민주가 정의요, 그렇게 흐르는 것이

고 한다. 또한 만천하에 권력에 의한 강탈이 명백히 밝혀진 부일장학회(釜日獎學會) 같은 것을 놓고도 구차한 변설로 되돌려주지 않고 있다. 그런 논리, 그런 생각이라면 진실은 끝내 밝혀질 수 없을 것이며, 정의는 영원히 바로 서는 날이 없게 될 것이다. 혹자는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고 하고, 혹자는 진실을 밝히되 국민내부의 화해를 해쳐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용서는 진실이 밝혀지고 나서야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고, 화해는 속죄와 반성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가능한 일이다. 이들 유력한 후보라는 사람들에게는 확실한 국가비전이나 변변한 정책마저 없는 데다가 민감한 국가의 현안문제에 그들은 애써 꿀 먹은 벼어리가 되고 있다. 그런데도 과거의 개발논리와 유신독재에 항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들고 있다. 이제쯤은 줄까지 세우고 있다. 이것은 분명 역사가 거꾸로 돌아가는 조짐에 다름 아니다. 나는 반노무현이면 다 좋은가와 함께, 21세기 새로운 문명시대에 과연 우리란 역사를 거꾸로 되돌려도 좋은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나는 다만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가 오기를 바란다. 그 물길을 막거나, 거꾸로 되돌리는 일은 결코 이 나라 역사에서 다시 있어서는 안된다고 믿는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두 눈 부릅뜨고 역사 속에 깨어있어야 하는 이유이다. <인문인·다산연구소 제6호>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시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시설

무너지는 지역상권 보고만 있을 건가

불경기와 대형 유통업체의 무차별적인 진출로 지역상권이 무너지고 있다고 한다. 지역의 대표적인 소기업까지 상인들의 입점이 끊기고 기존업소마저 빠져 나가면서 건물이 텅 비어 있는가 하면 용자금 이자와 관리비 등을 감당하지 못해 경매시장에 내몰린 상가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경매전문업체에 따르면 을 들어 광주·전남지역에서 경매에 부처진 상가는 모두 25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71건에 비해 무려 3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테마 소기업의 경우 한 소기업에 10~20개의 점포가 일괄 경매될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

지역상권의 몰락은 어제오늘에 나온 것은 아니다. 수년 전부터 대형유통업체들이 잇따라 진출하면서 지역상권을 싸늘이하다시피 하고 있다. 지역상가는 자금력과 정보력, 경영기법에서 중앙의 대형유통업체를 도저히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다. 대형 유통업체의 지방시장

공략 가속화는 지역 상권의 붕괴와 저급의 역외유출로 이어지면서 지역경제도 활력을 잃고 있다. 상황이 이런 데도 정부와 정치권은 대형유통업체 규제 제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어긋난다며 뒷짐만 지고 있다. 이 때문에 할인점 규제를 위한 입법은 1년이 다 되도록 허투루만 들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영세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할인점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의 의지가 문제인 것이다. 지방의 절박한 현실을 직접 와서 본다면 ‘구조조정’이나 ‘WTO 규범’이니 하는 한가한 소리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지역상권의 붕괴는 양극화를 부채질하고 저소득층을 양산하는 등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단순히 유통구조나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지방 영세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인터넷 음란 동영상 확실히 뿌리 뽑아야

정부가 26일 포털사이트에서 유포되고 있는 음란 동영상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는 음란물을 막기 위해 정부와 업계가 공동 대응을 나선 것이다. UCC(사용자 생성 콘텐츠) 음란 동영상과 저작권 침해 등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을 고려하면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이다.

정부는 정통부와 수사기관, 포털사업자 등 민·관이 합력하여 연결되는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불법유통정보 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또 음란물 게시자와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묻거나 영업정지를 내리는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포털의 음란 동영상 유포는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 집단감각이나 여성적·기술적 보완과 함께 지속적으로 단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네이버, 다음, 야후코리아, 구글 등 주요 포털의 동영상 코너에 성행위 장면을 비롯한 낯 뜨거운 장면이 노출돼 물의를 빚었다.

음란 동영상의 홍수를 이루고 있는 것은 동영상 UCC 전문업체와 대형 포털 사이트의 책임이 크다. 일부 사업자들은 동영상 UCC가 인터넷 최고의 인기 상품으로 떠오르자 현금과 경품을 내걸고 UCC 확보에 급급했다. 음란물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페이지뷰와 이용자만 늘려온 것이다. 음란 동영상은 포털에 뜨는 순간 인기 검색순위 상위에 오를 만큼 전파력이 폭발적이다. 그런데도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 없이 어린이와 청소년도 클릭만 하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등 무방비 상태나 다름 없었다.

정부는 음란 동영상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전쟁이 일회성에 그쳐서는 음란 동영상을 추방할 수 없다. 법적·제도적·기술적 보완과 함께 지속적으로 단속을 나서야 효과를 볼 수 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UCC의 특성상 포털사업자와 사용자들의 의식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NGO 칼럼

박필순



미래학자들은 ‘식량 자급’을 이뤄내지 않는 인류는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확언한다.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농업’을 살리는 길을 모색하지 않고서 지속가능한 삶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런 점에서 인류가 도시국가를 포기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기반에는 ‘농업’이 있어야 한다. 쉽지 않겠지만 안전한 식량을 생산하기 위한 농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지속가능한 녹색사회는 불가능할 것이다.

안전한 먹을거리를 원하는 도시 소비자들을 포함한 국민 모두의 문제가 이 문제이다. 농업을 회생시키는 방안으로 농촌과 도시를 연결하는 ‘농도공동체운동’을 고민하고 실천했으면 한다. 농도공동체운동은 크게 두 가지 흐름을 가지고 진행될 수 있다. 그 하나는, 도시소비자들이 우리 농업을 살리겠다는 인식과 ‘농도불이(農都不二)’라는 인식을 가지면서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민들이 중심이 되어 자치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농산물 직거래운동’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과 ‘연대’, ‘직거래’가 농도공

농도불이(農都不二)가 농촌 살리는 길

이 받지만, 무엇보다 안전한 식량을 공급받는다는데 의미가 크다. WTO와 FTA에 대변되는 세계경제체제와 ‘가깝’ 등의 대규모 곡물기업에 의해 진행되는 곡물판매시장은 전 세계의 농업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해마다 벌어지는 농민들의 아스팔트 농사는 거대한 세계경제체제와 이를 대변하는 정부 앞에서 항상 패배의 쓰라림과 눈물로 얼룩져버린 것이 현실이다. 현재도 고령화된 농촌에 희망은 없다고들 한다. 절망적인 현실이다. 이제 농사를 천직으로 여기고 농업과 농촌을 지키려는 농민 한명 한명을 살리기 위해 다른 길이 필요할 때가 아닐까? 우리 농업을 지키고 회생시키는 데 있어서 이젠 농민만의 힘으로는 어렵다. 도시 소비자들이 농민과 연결되지 않으면, 농업을 중요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제 농업은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체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다. ‘그 지역에서 난 것을 그 지역에서 소비한다’는 ‘지산지소(地產地所)’가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대도시 광주의 기업 및 병원, 학교 등 ‘단체 급식’을 농도 전남 등지의 농산물로 직거래하는 방안이 있다. 사례인 가야자동차노조와 구례농민회가 진행했던 ‘사업장 급식 직거래(농농직거래)’와 전남의 ‘친환경 지역농산물 학교급식’은 시민들과 농민들이 주체적으로 추진하고, 지자체와 기업의 적극적인 지원이 만들어낸 쾌거다. 이렇듯 도시민은 안전한 먹을거리를 보장받고, 농민은 안전한 판로를 확보하는 상생의 길, 도시민들이 농민 한 명을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구체적인 실천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농도 전남을 끼고 있는 광주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마음을 내 줄 때가 됐다. <광주전남녹색연합 녹색사회부장>

‘연탄재는 봉지 담아 배출’ 적극 홍보해야

연탄 보일러를 사용하는 가정이나 상점이 늘고 있다. 농촌에서도 비닐하우스에 난방용으로 연탄난로를 많이 사용한다. 하지만 연탄재 처리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듯하다. 연탄재는 규정상으로는 일반 봉지에 담아 분량제 봉투 장소에 배출하면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수거 업체가 무상 수거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다 쓴 연탄재를 비닐봉투에 담아 버리지 않고 문밖에 그냥 내놓아 미관을 더럽히는 것은 물론이고 아침마다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미화원들까지 힘들게 하는 가정과 상가가 여전히 많다. 연탄재는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며 자치단체도 연탄재 처리 문제에 대한 홍보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송희수·니주시 송춘동>



정겨운 우리의 삼살이



동물원 근무자들도 야생 동물과 함께 지내다보면 끌리는 동물이 있다. 수의사인 내 경우 삼살개를 좋아한다. 이름은 삼살리. 그렇다고 이 ‘삼살리’가 호감을 가질 만한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여지껏 대를 잊지 못하는 ‘불쌍한’ 녀석이다. 암컷을 두 마리나 바꿨지만 말이다. 당연히 새끼를 낳지 못하는 책임도 이 개가 뒤집어졌다. 느낌만으로 ‘죄’를 물을 수 없어 검사도 몇 번 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정상. 건강한 정자를 갖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이 녀석을 보면 안쓰럽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

다. 우리 동물원에서 처음 나의 존재를 알고 아는 척을 한 동물이 바로 ‘삼살리’였다. 동물원에 근무하려면 사람을 비롯해 동물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근무하기가 편하다. 수의사나 사육사에게는 더욱 그렇다. 말도 통하지 않는 동물이 자신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기분, 직접 겪어본 사람만 안다. 개들이 자신의 주인에게 보이는 변함 없는 충성심, 세상 어느 동물도 보여주지 힘든 그들만이 가진 특별함이다. <최충욱 광주우치동물원 수의사 lovnat@hanmail.net>

독자마당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 한눈에 보기 쉽게 표시해야

광주시내 공공기관, 빌딩, 대형 할인매장, 그리고 아파트 단지 등에는 장애인 주차 공간이 마련됐다. 하지만 장애인들에게는 불편한 점이 많다. 우선 대형 건물의 경우 장애인 공간이 눈에 잘 띄지 않아 차를 가지고 빙빙 도는 운전자들이 많다. 복잡한 광공식 빌딩이나 대형 할인매장이 특히 심하다. 이 같은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단순히 장애인 주차구역을 설치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해줬으면 한다. 즉 지하 주차장일 경우 기둥에 장애인주차 표지를 해주면 될 것이고, 지상 주차장이면 표지판을 세워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노면 위의 구역 표시도 밤에도 장애인들의 눈에 잘 될 수 있는 야광표지를 해준다면 공간 찾는 운전자들이 헷갈릴 치는 일도 피하고, 장애인들도 편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남상민·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 지급합니다.

無等鼓

25일 열린 세계수영선수권 남자 자유형 400m에서 그랜트 해켓(27·호주)을 제치며 금메달을 따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박태환은 바로, 해켓을 존경한다. 수영의 마라톤인 자유형 1,500m에서 세계 최고이기때문이다. 그는 박태환이 9살 초동 3학년으로 소년체전에 첫 출전했던 지난 98년 호주 퍼스 세계선수권 1,500m에서 우승했다. 2001년 7월 일본 후쿠오카대회에서 14분34초56으로 세계신기록을 수립했다. 이어 2003년 바르셀로나, 2005년 몬트렐대회까지 2년마다 열리는 세계선수권 1,500m 4연패의 금자탑을 세운 그의 우상이다.

들은 드디어 다음달 1일 이 종목에서 생애 첫 대결을 벌인다. 지난해말 도하아시아게임 1,500m에서 ‘마의 15분대’를 가볍게 뛰어 넘은 박태환(14분55초03)은 일찌감치 호주 펄버튼으로 건너가 몸을 만들며 해켓과 결전을 준비했다. 1,500m 기록단축의 핵심인 50m 퍼치수를 34~35개에서 32주 퍼스 세계선수권 1,500m에서 우승했다. 그의 비공식 경기까지 두 눈으로 지켜보며 물을 긁는 풀이 짙아진 허점도 찾아냈다. 호주인들은 이날 해켓이 400m에서 무너지자, 지난 94년 키에른 퍼킨스 이후 이 안 소프를 거쳐 16년 동안 호주 선수들이 지켜왔던 아성이 무너



졌다며 ‘400m 왕조의 끝(End of 400m dynasty)’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그러나 박태환은 때를 기다리고 있다. 훌륭한 영남이나 지구력에 앞서 볼 같은 승부욕이 최고의 강점인 동양의 10대 소년에선, 1,500m의 권좌에 오르는 것이 최종 목표다. <기현호 체육·여름매체부장 kihh@>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	
대표전화 2200-500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정치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서울지부 02-773-9331
사회1부 2200-618	사건부 2200-690	사업2부 2200-552	(F A X 02-773-9335)
(F A X 222-4267)	조사부 2200-570	※구독료 월정 5,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